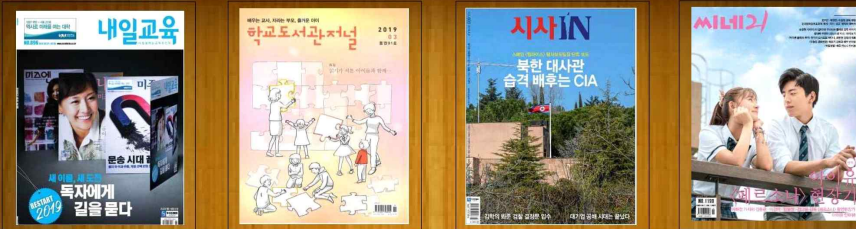


●정기구독 잡지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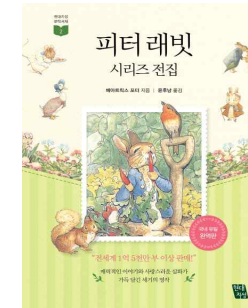


‘귀로 읽는 책 ‘오디오북’

요즘에는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. 오디오북 서비스는 단순히 종이책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오디오북과 달리 성우, 연극배우, 소설가, 아이돌 등 다양한 창작자들의 세심한 목소리 연기와 전문적인 연출을 통해 또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책 이상의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이다.



쇼코의 미소



피터 래빗 시리즈



빨강머리 앤 등

오디오북은 30분 정도로 요약한 책을 직접 읽어서 들려주는 방식으로 책을 읽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, 귀로 들으며 다른 일을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오디오북 어플들의 장기 구독자가 늘고 있다. 특히나 이병헌, 변요한, 구혜선 등 쟁쟁한 톱스타들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어 단숨에 대중

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. 오디오북을 제공하는 어플들은 대부분 유료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인들에게 유익한 어플이라고 생각한다. 어플들을 몇 개 소개해보자면 <밀리의 서재>, <월라>, <오디언> 등이 있다.





일본의 개그맨 타무라 히로시의 자전적인 에세이집 『호리스 중학생』.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집안에 닥친 불행으로 갑자기 집 근처의 공원에서 호리스로 생활하게 된 경험을 고백조로 풀어내고 있다. 막 철들기 시작할 무렵 연달아 닥친 집안의 불행, 호리스로 생활한 공원에서의 에피소드, 이웃의 도움으로 형제들과 함께 독립한 이야기,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그맨의 길을 택하게 되기까지의 여정 등 진솔하고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있다.

호리스 중학생 - 타무라 히로시



어릴 적에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함께 성추행을 당했던 동명이인 ‘유진과 유진’은 중학생이 되어 한 반에서 해후한다. 활달한 성격의 ‘큰유진’은 ‘작은유진’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유치원 때를 떠올리고 말을 건넨다. 하지만 작은 유진은 큰유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새침하게 군다. 어릴 적 기억의 일부가 상실되었던 작은 유진은 서서히 기억을 되찾게 되었고,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한편 냉정한 부모의 태도에 큰 슬픔을 느낀다. 모범생이던 작은 유진은 탈선을 하여 방학동안 부모 몰래 담배를 피우고, 학원에 가는 대신 춤을 배우러 다닌다. 방학이 끝날 즈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작은유진을 방에 감금하며 유학을 떠날 것을 강요한다.

유진과 유진 - 이금이



< 느낀 점 >

이 책을 읽으면 인간관계(친구관계)에서 일어나는 다툼 때문에 생기는 분노를 잘 멈출 수 있는 방법과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다.

책에 쓰여 있는 친구노트(일기이자 가상의 친구)로 속상한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적은 다음 친구가 이 노트에 적힌 내 감정을 알았다면 뭐라고 위로할까를 상상해서 그 밑에 쓴다. 그러다보면 흥분 된 마음이 가라앉고, 축 처져 있던 마음이 평상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
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니 도서관에 와서 ‘뺑치는 순간